

LGU+, 1만5121시간 봉사활동... 나눔 온기 높여

지난해 임직원 봉사 인원 3881명 기록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한 해 임직원 봉사 시간이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만5121시간, 참여인원 연간 누적 3881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조직문화 핵심활동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문화'를 포함해 임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팀 혹은 담당 단위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일봉사 '1팀·1담당 1나눔' ▲사전 정보 없이 떠나는 미스터리 봉사 'U+나눔 버스' ▲목소리 기부를 통한 시각장애인 책 읽기 봉사 '보네이션(Vonation)' ▲장애가정 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꿈을 지원하는 '두드림 U+요술동장' 등 사내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사내 봉사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이 많은 지방 근무 임직원을 위한 봉사



지난해 6월 'U+재능봉사단'이 청파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자율적으로 봉사를 계획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로 지방 근무 임직원 봉사활동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8시간의 봉사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 유급휴가제도', 나눔 활동 참여에 마일리지 부여해 일정 마일리지 도달 시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선물하는 '나눔마일리지' 등을 도입했다. /김나인 기자 sikni@metroseoul.co.kr

'乙'들의 눈물



기지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을 중의 을이다. 어쩌면 그조차 되지 않는 처지일지도 모른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이야기다.

최근 콜센터 업체의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콜센터 업체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가는데, 상담원들의 처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는 지난 2006년 581개에서 2017년 913개로 늘었다. 종사자는 3만2662명에서 7만5430명으로 증가했다. 10여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사람은 늘었는데 급여는 10년 전 그대로다. 수화기 너머의 폭언을 견디고, 생리현상을 참아가며 받는 돈이 고작 10여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생면부지 고객의 '갑질'에 냉가슴을 앓아도, 곧바로 다음 콜을 받아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고용불안 역시 상담원들을 옥죄는 고충 중 하나다. 모 업체의 현직 상담원은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언제든 잘릴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고 표현했다.

실제,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 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7년 11월 출범 이래 지난해 말까지 신원이 확인된 콜센터 관련 제보는 80건 정도다. 이 가운데 괴롭힘·폭언이 25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불안 17건(21.2%), 임금 14건(17.5%)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금껏 콜센터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도출된 적은 없었다. 누군가는 '해묵은 이슈'로 여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언제나 현재진행형인 문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참담하다. 여전히 상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상담원들은 여전히 갑질에 신음하고 있다. 심지어 퇴보하는 모양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 가능한 사회에 진입하면서 상담원들은 찰나의 자유조차 빼앗기고 있다. 감정도동자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법안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촉구되는 바다.

/min0812@metroseoul.co.kr

대림산업, 3세 경영... 이해욱 회장 승진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사진)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창업주인 고(故) 이준용 명예회장의 손자다. 이로써 대림은 본격적인 3세 경영 체제가 시작했다.

이 회장은 14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명예회장님과 선배님들이 이뤘던 대림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절대경쟁력을 갖추 때까지"라는 취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지난 1995년 대림에 입사해 2010년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I



및 해외 메이저 석유화학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키며 그룹 전체의 재무위기를 넘겼다.

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석유화학사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석유화학사업 빅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신평면 개발 및 사업방식 개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전 분야에 걸친 원가혁신을 도모해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대림은 10년 동안 연구개발을 거쳐 2010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반응성 폴리부텐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기술은 영업이익률 제고로 이어졌으며, 지난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석유화학의 본고장인 미국에 석유화학 제조기술 수출에 성공했다.

최근엔 건설업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에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채신화 기자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60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72년생 히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84년생 먼저주고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을 것.
- 소** 49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61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서 두드려 보자. 7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85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상쾌.
- 호랑이** 50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62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4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6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 토끼** 51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 63년생 남의 말은 잘해야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87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계.
- 원숭이** 52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행거라. 64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기분 좋은 하루. 7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8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 뱀** 53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65년생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라. 7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89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 말** 5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 66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불통을 손질해라. 78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 90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밭이다.
- 양** 55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67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79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조용한 하루. 91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 원숭이** 56년생 오늘은 양보와 희생이 답이다. 68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80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라. 92년생 선배의 소개로 맞선자리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 닭** 5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야 한다. 81년생 숫자 7, 흰색이 행운을 가져온다. 9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 개** 58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0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82년생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니 좋은 결과를 얻음. 94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 돼지** 59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하다. 71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큰 낭패. 83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5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운세를 최대한 누리려면

"재물이 트였을 때 최대한 돈을 벌고 싶습니다." 매장 3곳을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일하는 어느 사장님의 말이다. 작년 상담을 왔을 때 앞으로 5년 정도 재물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일러줬다. 말하자면 개운의 시기가 왔던 것이다. 그 전에도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후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 운세가 따라줄 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돈 버는 재미가 생기면서는 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운이 열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걱정이 앞섰다.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는 게 너무 선명히 보였기 때문이다. 저렇게 돈, 일 욕심을 내다 털어내야 고장 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때는 몸은 몸대로 상할 것이고 운이 주는 이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운세는 고사하고 손해만 가득할 게 뻔했다. 사실 직장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자기를 시간에 쫓기는 '타임푸어'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무엇을 하든 정신없이 일하고 바쁘게 돌아쳐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말한다. 더구나 그런 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돈을 쫓다 '인생푸어'에 '건강푸어'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장님은 결국 과로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문병을 가보니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달 정도 입원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운세가 열리면 무조건 쫓아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운세를 다 누리질 못할 때가 많다. 여러 사람을 보며 얻은 경험담을 말해주니 거칠어진 얼굴의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한다. 좋은 가르침을 얻었다고 말한다. 운세를 활용할 때도 욕심보다는 비움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4	2	3			
3								2
	5	3		2		1		
	3		8			4		
	6		7		5		8	
4								3
			5	6	7			
		2				8		

5	8			2				9	3
		9	2					7	8
			3	4		2	1		
1					8				9
	3							7	
			4					2	
2			5		3				1

스도쿠 정답									
9	6	8	7	5	1	2	3	4	5
1	2	7	4	9	5	8	6	3	1
5	3	8	6	2	9	1	7	4	8
6	8	5	1	2	7	9	3	4	6
5	7	2	9	8	6	4	1	3	5
4	1	9	3	7	5	6	8	2	1
2	4	6	1	5	9	8	7	3	4
8	9	1	5	2	7	5	6	4	3
7	5	6	4	8	1	2	9	3	7
1	9	8	5	7	6	3	2	4	1
5	2	4	6	8	7	1	9	3	5
7	4	6	1	9	2	5	8	3	7
6	7	5	8	9	4	1	2	3	6
4	2	9	6	1	5	8	5	7	3
8	5	1	2	4	7	5	9	6	8
9	8	7	5	1	2	6	4	3	5
2	1	5	8	6	9	7	4	3	2
5	6	7	9	2	4	1	8	5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24호